

한학교 여교사 모두가 시인 됐다

광주 본량초교 교사 5명 3월부터 나란히 등단

매주 한자례 시낭송 … 서로 비평하며 詩作

광주의 한 농촌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모두 시인으로 등단해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 광산구 본량초등학교 ‘꽃길’ 동아리의 박은주(45·회장) 교사 등 5명.

교사가 학년당 1명씩(6명) 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시골학교에서 올초 동아리 회원이 된 남자 교사를 뺀 5명의 여교사 모두가 시인으로 등단한 것이다.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겨울 방학 때였다. 평소 동시(童詩)에 관

심이 많았던 박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동시에 접목하는 제안을 했고, 모든 교사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꽃길’ 동아리가 탄생하게 됐다.

이후 회원들은 뇌작한 선배 교사이자 시인인 박경식씨로부터 매주 1~2 차례씩 ‘강도 높은’ 지도를 받았다.

시의 기초에서부터 자작시(自作詩)까지 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돼 지난해 처음 암용된 새내기 교사 김수현(25)씨와 고참 교사 나은희(52)씨가 지난 3월 문학춘추의 신



박은주 교사 김수현 교사 나은희 교사 오은하 교사 박지윤 교사

인상을 받으면서 첫 결실을 봤다.

이어 박 교사는 문학춘추 5, 6월호에 연이어 당선되고 역시 새내기 교사인 오은하(25), 박지윤(25)교사도 아동문예지에 이름을 올렸다.

‘꽃길’ 회원들은 요즘도 매주 1차례

이상 만나 시를 낭송하고 음미하면서 서로 비평을 해주는 등 실력 연마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기나 생활문 등 글쓰기 지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것이 큰 보람이다.

동아리 회장 박은주 교사는 “동시를 쓰다 보니 모두 동심(童心)으로 되 돌아간 느낌이 들고 이 느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생활원예 콘테스트

박화숙씨 베란다 정원 대상

박화숙(화순읍 일심리)씨가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 5회 생활원예 콘테스트’에서 ‘베란다 정원’을 출품,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에서 선발된 21명의 출전자가 베란다정원, 디쉬가든, 테라리움 등 3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였다.

화순군은 지난 2006년 신영애(화순읍 광덕리)씨, 2007년 양광님(화순읍 신기리)씨에 이어 올해까지 생활원예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입증하는 평가를 이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대병원 건강강좌

간염·간질환 정보제공

전남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과장 최성규 교수)는 간염 및 간질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9일 오후 2시 병원 5동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만성간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성규 교수) ▲내가 경간변증 환자라면(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대근 교수) ▲간암치료 어디까지 왔나?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성범 교수) 등을 주제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과학기술연차대회 참석 강진 출신 美 미주리대 화공과 이성규 교수

“나는 美 과학계의 자랑스런 ‘KB’다”

(Korean Bozo·한국 얼간이)



400여편 논문·석박사 120여명 배출

미서 ‘골수 과학인’으로 존경 받아

“늙은 교수는 강의가 만병통치약이며 죽지 않고 다만 백화를 읽어버릴 뿐이다.”

133편의 학술잡지 논문, 300여편의 국제학술대회 논문, 102건의 주요 연구프로젝트, 120여명의 석사·박사·박사후 과정학생(post-doc) 배출 등의 기록을 가진 전남 강진 출신 미주리대 화공과 이성규(57) 교수가 한 말이다.

미국 과학계에서 ‘KB’(Korean Bozo·한국 얼간이)로 통한다는 이 교수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맥아더 장군의 유명한 이 말을 빗대 “나는 평생 선생이요”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학자로서 연구와 강의를 전적으로 하는 ‘골수 과학인’으로서의 열정을 운운으로 보여주는 그는 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09 한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이 교수는 자신의 별명 ‘KB’가 이름과 성 사이에 분명하게 인쇄된 명함을 스스로 없이 건넸다.

그는 ‘KB’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한국인임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Korean Bozo’가 이 정도면 다른 한국인들은 어떻겠는가라고 되묻는다면 답이 되는

가”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32년간 미국에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한 그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상 ‘KB’는 ‘최고 한국인’(Korea’s Best)으로 불리는 게 맞다고 주변에선 농담처럼 말한다.

이 교수는 또 “학회는 일 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수업시간은 빼먹지 않

는다. 신양처럼 배어 있다”며 “나한테서 배우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때가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열역학과 플랜트디자인 과목이 전공이지만, 저서 12권의 ‘전천후 학자’로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은 없다고 했다.

1980년 악관 28세 나이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곧바로 애크론대학 화공과 조교수로 채용돼 불과 8년 후 정교수 승진과 함께 1997년까지 학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 대학에서 1987년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주리대에서도 올해 최우수 교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는 화공 분야의 세계적 백과사전인 ‘케미컬 프로세싱’의 편집자며 27건의 미국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광복할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교육적 이슈는 과학자들을 비롯해 공학도, 환경론자, 정책 입안자, 산업역군들의 의미 있는 국제적 협조를 요구함에 있어 적절한 본보기와 세계 추세를 감안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 출생으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화공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그는 “서울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호남 악센트가 이젠 미국에서 한국 악센트의 영어로 바뀐 걸”이라며 “뭐든 적용을 잘 해야지…”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연합뉴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 안성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안성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성기는 9.2%의 지지를 받아 ‘한국인이 좋아하는 배우’ 1위에 올랐다. 안성기는 지난 2004년 같은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었다.

2위는 ‘박쥐’의 송강호(6.3%)가, 3위는 2004년 2위였던 장동건이 차지했고, 설경구, 신성일, 정우성, 황정민, 김수로, 정준호가 뒤를 이었다.



김혜수, 작품 기부 캠페인 벌인다

영화배우 김혜수가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

김혜수는 케이블채널 온스타일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진행하는 ‘스타일 미츠 아트’ 캠페인에 참여해 국내외 예술계 거장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또 이들이 기부한 작품을 연말 경매로 판매해 수익금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전달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 수익금을 젊은 문화예술인육성 및 저개발국 어린이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기금에 보탤 계획이다. 연말 경매에서는 김혜수의 작품도 함께 판매된다.

강철석 강진 마량 주민자치위원장 도지사 표창

강철석(57) 강진군 마량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강씨는 쌀 기증과 장수노인 사전촬영 등 관내 불우한 이웃을 위한 봉사를 비롯해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돋기 위해 200여 명의 청탁 청소년장학금 기금을 기탁했다.

또 올해 토요일아동회 추진위원장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증가와 마량회집이 민원을 이루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박규선·유근자씨 장남 흥진군 이동희(진월초 교장)·나현옥씨 장녀 보리양=11일(토) 오후 1시 서울 건설회관 2층 웨딩홀.

▲정형도(전 조부대부고 교사)씨 차남 용중(사법연수원생)군 서정범(아남전자)씨 장녀 미혜(서울 학원 강사)양=11일(토) 오후 5시 서울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9회 동창회(회장 장무성) 월례회=9일(목)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062-525-7393.

▲본량초 제23회 동창회(회장 윤희태) 정례회=11일(토) 낮 12시 황룡강변 신송산대교 아래. 011-666-0660.

종친회

알림

모집

부모

▲구림초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개최=11일(토) 오후 6시30분 원양회관. 062-375-0770.

▲보성중학교 14회 총동창회(회장 강진성)=11일(토)~12일(일) 보성 다비치콘도. 010-3605-0505.

▲문화류씨 하정공과 광주종친회(회장 류수영) 정기모임=9일(목) 오후 6시30분 서정범(아남전자)씨 장녀 미혜(서울 학원 강사)양=11일(토) 오후 5시 서울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정형도(전 조부대부고 교사)씨 차남 용중(사법연수원생)군 서정범(아남전자)씨 장녀 미혜(서울 학원 강사)양=11일(토) 낮 12시 황룡강변 신송산대교 아래. 011-666-066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23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방학 특강 모집=청소년 다도, 예술 교실

21일~ 8월 20일(매주 토, 일) 오후 4시, 총 10회 초 3 ~ 중 3, 회비 3만 원, 서예(매주 월, 수 오전 10시), 요가(매주 월, 수 오전 10시), 노래교실(매주 토 오후 2시) 쌍촌동 원음 방송국. 062-232-7223~4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기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장 운동장. 017-656-3431.

▲한미마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 광